

받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. 병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권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병원에서 이야기한 시한부 시간을 벌써 5개월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아직 체력의 회복은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, 스스로 보행과 간단히 주방 일을 도와줄 정도로 영숙씨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. 권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은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을 우리 몸에 넣어준다는 것을 이 산속에서 5개월간 지내면서 느끼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에 얽매이기 보다는 하루 하루 자연에서 선사하는 아름다움에 감격을 합니다.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웨신은 자주 잘 안되어서 하루에 2번만 집 앞에 나무에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. 타잔 놀이 합니다.....>

<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살고 있길래.....>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뇌삼을 받아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었습니다

3월에서 4월이 넘어가면서 봄이 물씬 풍기는 냉이와 민들레 한 박스가 병원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...와~~장백현의 냉이와 민들레의 향기는 온 병동으로 퍼져나갈 정도로 향기와 신선함이 대단하였습니다.

저는 박스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. 자연의 힘에 다시 감동을 했습니다.

<아~~~~이 정도 향기라면 지금 박목사님 부부가 있는 곳의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 토양 위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이영숙씨의 생명이 다시 시작할 만 한 곳에 있다고> 생각을 했습니다.

작은 냉이에서 이 정도 생명의 향기가 날 정도면...소포가 이곳까지 오려면 최소 5~7일 걸리는데...대단한 생명력을 느껴봅니다. 장백현 겨울 산에 심마니들이 캐어다 주는 산에 버섯과 약제들을 먹고 있는 이영숙씨를 생각하니...좋아지는 이유가 있었던